

+ 방송과기술 편집부

방송기술직군 소개



KBS 방송기술직군 업무

KBS는 크게 3개의 직군과 21개의 직종으로 구분하여 인사 전반(채용, 보임, 승진 등)을 운영 · 관리하고 있다. 이중 기술직군은 방송기술을 비롯하여 건축, 설비, 통신, 전기, 항공, 수신기술이 포함된 7개의 직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Table with 3 columns: 직무 대그룹, 직무 소그룹, 직무. Rows include categories like 기술관리/연구, 제작기술, and 송신기술 with their respective sub-groups and specific job titles.



KBS 방송기술 미래 비전

KBS는 타 방송사와 달리 본사와 18개 지역(총)국이 단일 법인으로 구성되어 본사와 지역간의 활발한 인적, 기술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 중 가장 많은 매체와 채널 및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 제작, 송출, 송신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 기술력을 유지, 발전시켜 오고 있다.
최근의 방송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고유 영역이 허물어지지 이미 오래되었고 오히려 방송과 통신이 적자생존 내지 공생의 관계 속에서 치열한 사업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방통융합 시대에 방송기술은 과거 단지 사내 인프라 구축, 시설운용 및 제작참여 정도의 한계를 벗어나 미디어시장 전체의 다양성과 사업성에 중요한 축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디지털 방송환경 변화의 중심에서 KBS 방송기술은 2012년말 디지털 전환 완료 및 아날로그TV 방송 종료란 중요한 시점을 맞아 내부적으로는 사내 각 부문의 디지털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이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정착시킴으로서 분야별 업무효율화와 다매체 시대 지상파방송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현재는 우수한 방송기술 인력을 신규 디지털 생성 직무로 적시 재교육·재배치함과 동시에 보다 유연한 인재선발 과정을 통해 시대 상황에 맞는 신규 인력을 적재·적소에 수급함으로써 전체 방송기술 인력의 디지털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디지털 전환 이후 방송주파수 재배치나 미디어법 및 공영방송법 등 대외 방송환경 변화 속에서 방송기술의 위상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뉴미디어 방송환경에 맞는 다양한 양방향 디지털 방송서비스 구현을 위해 방송망 확장, 방송인프라 구축 및 방송기술 연구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 누구든지 KBS의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방송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공영방송 방송기술인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KBS가 요구하는 인재상

전문지식(Professional)

방송기술 직종은 다른 직종보다 직무가 매우 다양하며, 직무별로 고유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성이란 지식 요소뿐만 아니라 경험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하므로 입사시 지식 요소가 충실히 구비되어야 한다.

창의력(Creativity)

기존 아날로그 방송이 획일화,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디지털 방송은 다양화, 수요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방송시대의 KBS 방송기술인은 보다 창의적 사고를 통해 시청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실현한다.

의사소통(Communication)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조직 내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조직 내 위계질서 속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녹여낼 수 있는 휴머니즘을 가진 인재가 요구된다.

공영방송인으로서의 공적 책임감(Public responsibility)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사이다. 따라서, KBS 방송기술인은 시청자를 주인으로 국민 모두가 고품질의 보편적 방송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방송현업 수행시 공영방송인으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공적마인드가 필요하다.





방송기술의 정의

방송법 상 방송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 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 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그러므로 방송기술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송신하는 데 필요한 전기통신기술의 총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방송기술을 크게 분류하면 영상과 음향을 제작 및 가공하는 제작기술과 편성대로 방송신호를 각 가정까지 보내는 송출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대분류는 현재에도 유효하지만, 제작과 송출에 사용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 플랫폼이 다변화되면서 방송기술의 외연은 계속 넓어지고 있다.

Table with 3 columns: 포괄적 관리군, 관리군, 직무. Rows include 일반관리군, 제작기술군, 송출군, and 기타.

방송기술 업무의 변화

방송을 구성하는 정보(특히 영상 정보)는 정보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다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망을 구성하여 한 방향으로 전송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방송 제작 과정 역시 선형적으로 구성되어 기획-시설배정-조명-녹화-편집-후반작업-종합편집-송출의 워크플로우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정착되었다. 즉, 방송기술의 업무는 제작 신기술의 도입, 아날로그 방송망 확충 및 안정적 송출을 위한 시설구축 및 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방송환경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는 미디어 산업계의 경쟁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기술 업무도 전통적인 제작, 송출, 송신 업무와는 다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째, 디지털 제작시스템의 도입이다. 기존의 테이프와 VCR을 기반으로 한 선형적 제작시스템을 NLE와 서버를 이용한 Tapeless 디지털 제작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히 장비와 시스템만을 교체해서는 디지털 제작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워크플로우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콘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효율성도 올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방송기술인은 'engineer'의 고유 역량도 갖추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coordinator로서의 역량도 중요해질 것이다.

둘째, 디지털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송출하고, 여러 매체에 적합한 형태로 분배하며, 시청자의 피드백을 받아 처리한 후, 추후 사용을 위해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실제로 시청자는 지상파 방송을 점점 더 다양한 단말기와 망을 통해 시청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방송기술인의 미션이 될 것이다.

셋째, 수십 년 간 지상파 방송사와 시청자가 송신과 수신 측면에서 구축해 놓은 아날로그 방송 전송 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가 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통신 서비스나 유료방송 서비스는 디지털 전환이 전적으로 가입자의 전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비교적 쉽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방송사가 송신측면만 디지털화한다고 전환을 장담할 수 없다. 방송사, 정부, 가전사 등이 체계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MBC가 요구하는 방송기술 인재상

창의적이고 지적이며 열정을 가진 다재다능한 엔지니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많은 제작 송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해야 하고, 특히 방송에서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으므로 공학적 원리는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방송기술의 직무특성상 매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므로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를 추구하는 창의력이 요구된다. 또한, 모든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목표를 성취해 가는 인내심과 끈기, 투철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